



# 내 생애 첫 파업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습파업 돌입

## 기습 파업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분당, 성남, 이천, 평택 4개 분회 120여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고 평택센터 앞으로 모였다. 당일 아침 긴급하게 날아온 중앙 쟁대위 파업 지침. 조합원들은 제대로 두터운 외투도 못 챙겨왔지만 압도적 다수가 참가해 멋지게 생애 첫 파업을 성공시켰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계양전기, 두원정공, 우리, 포레시아지회 동지들과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평택안성지부 등 연대 동지들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다.

## 된다 되네

21일 전국 15개 분회 22개 센터 450여 명의 조합원들이 일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전날 김해센터 파업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

평택집회에서 각 분회 조직담당들은 모두 “생애 첫 파업, 불시파업, 기습파업. 너무 걱정했는데 이렇게 다 모여서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파업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된다. 되네!”라고 소감을 남겼다.

교섭 지연,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 무력화. 뻔한 전술을 쓰던 삼성은 우리의 기습에 당황했다. 곳곳에서 전화가 오고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난리였다. 불법 대체인력 투입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스스로 직접 책임자임을 인정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확인한다.

## 첫사랑 같은 첫파업

경기센들은 긴급 쟁대위 회의를 열어 투쟁계획을 세운 후 분당 서현센터로 가서 또 한 번 집회를 열었다.

처음으로 집회 사회를 맡은 이천 박민호 조직담당은 처음엔 약간 어색했지만 이내 익숙해진 듯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위영일 지회장은 “첫 파업, 우리가 노동의 주인이 된 날”이라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분회장들도 나왔다. 이성경 이천분회장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지해달라” 외쳤다. 평소 말이 없는 김석준 분당분회장도 “남부권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 우리도 같이 일어섰다. 모두 내 일로 여기고 같이 가자”며 숨겨둔 열정을 토했다. 신명기 성남분회장은 “삼성을 바꾸고 우리 권리 찾아서 자랑스런 아빠가 되겠다.”고 해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몸이 아픈데도 추운 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신연홍 평택분회장은 짧고 굵게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처음에 어색했던 집회는 점점 뜨거워졌다.

평소 마이크를 극구 피하던 이학천 대의원은 “10년을 일하면서 7년은 그만둘까 생각했다. 노조를 만드니 이제 희망이 생긴다. 우리가 바꾸자!”고 말했다. 남석우 대의원은 “최종범 열사가 생각한다. 반드시 삼성이기겠다”고 힘을 주었다.

발언을 자청한 성남 신현우 총무는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 산다면 오늘 나오지 않고 돈 벌러 갔을 거다.

15,000원 벌자고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던 건 내 가족을 위한 거였지만 비참했다. 이제 우리 모두를 위해 산다면 삼성을 이기고堂堂하게 우리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 길유림 조합원은 주변의 추천을 받아 무대에 섰다. 무슨 노래를 부를까, 아는 노동가도 없는데.. 망설이던 그는 멋들어지게 “남행열차”를 불렀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신나게 집회를 이어갔다. 앞으로 투쟁에 선 공식 가수로 나서라는 뜨거운 반응도 나왔다.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 하고, 뜨겁게 마음에 남는, 너무나 설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우리들의 첫 파업 날이었다. 누군가는 “첫사랑 같은 첫 파업”이라고 오늘 파업에 이름을 붙였다.

## 시민들도 함께

많은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췄다. 무려 삼성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들의 인간선언이 의아한 듯 귀를 기울였다. 집회 준비 중에는 한 여성이 “건물 3층에서 누가 여러분들 사진 찍고 있어요. 가서 막으세요.”하고 알려주었다. 집회를 지켜본 경찰들도 “삼성이 그 정도지 몰랐다. 뭉쳐서 권리 찾아야 한다”며 응원해주었다.

## 옛장수 맘대로! 우리가 옛장수

파업 일정을 마무리한 조합원들은 각자 센터로 돌아가 평가회의를 했다. 너무 신나고 좋았다는 의견부터, 준비가 부족했고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투쟁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갖추자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오늘 파업을 하며 “옛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한 조합원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자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 투쟁기금을 걷기로 한 분회도 있다. 성남분회는 모란센터 앞에서 약식집회를 하고 오늘 투쟁을 마무리했다.

췌 들의 투쟁은 이제 거침없는 확장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주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다. 집회를 마치고 위영일 지회장은 “사랑은 움직이는거야”라며 우리의 첫 사랑을 전국 곳곳으로 퍼뜨리자고 말해 참가자들이 박장대소했다. 오늘 경기도 모 센터 동료들은 파업 중인 우리 센터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멋진 소식이다. 목숨걸고 싸우는 동료들을 죽일 순 없다고 했단다. 전국은 들쭉이고 있다.

### 아름다운 첫 사랑이 언제까지나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장면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간다. 옛장수 맘대로! 뜨거운 사랑으로!

경기남부.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채  
중앙쟁대위 지침을 하달받고  
지역 쟁의대책위원장으로 적지 않은 부담과 걱정을 안고  
처음으로 지침을 보냈습니다.

“09시부터 파업하며 10시30분까지 평택으로 집결바람!”

시간에 맞춰 평택분회에 도착하니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한 건 조합원이 아니라  
지역쟁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였던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는 최고조였고  
조합원들의 임단협 쟁취 열정은 그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오늘 저는 희망을 보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추운 날 고생들 한 조합원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막강 경기 단결하여  
맛간 삼성 바로잡자

**경인 지역쟁대위원장 박성주**

